

# 종부세 '상위 2%' 9억 초과분에 과세

### 민주당 종부세 수정안 검토

### 과표기준 9억원 유지

### 모순적 과세체계 지적도

### 송영길, 표결처리 정면돌파 주목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종합부동산세 수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위 2%'에 부과되던, 기존의 9억원 공제기준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애초 방안대로 종부세 기준을 '9억원 초과'에서 '상위 2%'(공시가 11억원 추정)로 바꾸면 자연스럽게 공제기준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공제기준 상향조정으로 사실상 부자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당내 강경파들의 반발

을 누그러뜨리려는 절충안이다.

특위 관계자는 15일 "상위 2% 미만에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가져가면서도 공제기준을 기존 9억원으로 두도록 조율 중"이라며 "부자감세 비판은 좀 달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과세 체계에서는 모순적인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공시가격 9억~11억원에 해당하는 구간에서는 정작 공제기준 9억원을 웃돌면서도 '상위 2%'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부세에서 아예 제외되게 된다. 이때문에 당내 정책파트 내에서 일부 반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지도부는 논란이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이번 주안으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종부세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송영길 대표의 '표결 처리' 강행 의

지도 피력한 것으로 알려져 종부세를 둘러싼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송 대표가 전화를 걸어와 '부자 감세가 아니다. 반대 의사를 철회해 달라'며 설득하면서 자칫하면 총회에서 표결처리 할 수도 있다고 했다"며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시간을 충분히 갖고 의견을 더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도부 내에서도 표결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당 고위 관계자는 "표결로 이긴다 해도 끝난 게 아니다. 상임위에 논의의 도 거쳐야 한다. 반대파는 표결에서 계속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좀 더 시간을 갖고 최대한 합의안을 만든 뒤 의총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4년 연임·대선 결선투표...개헌안 꺼내든 친문

### 친문 핵심 최인호 의원 공개 제안

### "선거주기 맞춰 2032년부터 적용"

더불어민주당 주류인 친문 진영에서 대선에 앞두고 개헌론 군분패기를 이어가고 있다. 대권주자들 간에 개헌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친문 진영이 개헌론 드라이브를 주도하면서 향후 경선 과정에서 개헌론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부산과 친문 핵심으로 분류되는 최인호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대선과 총선의 동시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현행 주기를 고려해 22대 대선과 24대 총선이 함께 치러지는 2032년부터 적용하자고 밝혔다.

최 의원은 "5년 단임 대통령제는 여소야대 상황이 겹칠 경우 국정운영 자체가 어려워진다"며 4년 연임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대선과 총선의 주기를 일치시키면 유권자가 대통령 후보와 그가 소속된 정당에 총선에서 투표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대야소 출현 가능성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러한 개헌에도 여소야대가 출현할 경우에 대해선 "국회 추천 야당 총리를 '정치적 관행

화'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동시 선거에서 '야대'를 만든 국민 의사를 존중해 대통령과 국회 추천 총리가 협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리 대선 결선투표제를 제안하며 "대통령의 정통성·대표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연합정치를 활성화하며, 군소 정당의 입지가 강화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2023년 상반기 개헌안을 발의해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같은 해 하반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개헌안 발효 시기는 부처에서 2032년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이낙연 전 대표 대선 캠프에 몸담고 있는 최 의원은 이날 개헌 제안은 특정 후보와 무관하고 개인 자격으로 제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오는 16일 친문 의원들이 주축인 '민주주의4.0연구원' 세미나에서 이러한 개헌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김종민 등 다른 친문 핵심 의원들도 권력구조 개편 등을 담은 개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친문 진영이 개헌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빅3 가운데 이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은 개헌을 주장하고 있지만,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오른쪽 두번째)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DJ 정신' 지렛대 호남 민심 꺼안기?

### DJ도서관 찾아 "국민 통합" 강조

### "8월 경선 일정 시간표 상충 안해"

### 국민의힘 입당 가시화 관측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앞두고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을 방문,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선 윤 전 총장이 'DJ 정신'을 지렛대로 호남 민심을 꺼안고 국민 통합 이미지 강화와 중도층 공략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윤 전 총장 측이 김대중 도서관 방문을 직접 밝힌 것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15일 윤 전 총장 측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지난 11일 김대중 도서관을 방문, 방명록에 "정보화 기반과 인권의 가치로 대한민국의 새 지평선을 여신

김대중 대통령의 성찰과 가르침을 깊이 새기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윤 전 총장은 약 4시간 동안 이곳에 머무르면서 김성재 김대중아카데미 원장의 안내로 김 전 대통령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햇볕 정책 등 국민의정부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윤 전 총장은 "김 전 대통령에 대해 새롭게 존경하게 됐고, 그 업적이 놀랍다"며 "수난 속에서도 용서와 화해를, 과거를 넘어 미래로 가는 정신을 높이 새기게 됐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DJ 정부 시절 일궈낸 정보화 산업 기반에 대해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발전했다. 참으로 탁월한 해안이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국민이 화합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다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지 않아야 하겠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윤 전 총장이 이른바 'DJ 정신'을 빌어 용서와 화해, 과거보다 미래를 강조한 것은 정치권의 대립

과 갈등을 넘어 미래를 향해 화합하자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광주의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라고 평가한 데 이어 김대중 도서관 방문을 자칭, DJ의 생애를 기린 것 역시 국민 통합 행보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총장 측 이도훈 대변인은 15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고수해온 '8월 경선 시작' 일정에 대해 "윤 전 총장도 그런 캘린더를 염두에 두고서 국민의 여론을 보고 있다"며 "시간표가 상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 국민의힘 입당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대변인은 "(윤 전 총장은)국민이 불러 나왔기 때문에 모든 선택지는 열려 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도 나타내 윤 전 총장과 국민의힘 사이의 밀당은 일정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민주 "국민의힘, 권익위에 요청서 달랑 한 장"

### 부동산 조사 의지 의문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요청한 국민의힘에 "요청만 하고 조사 받을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맹공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권익위에 제출한 서류는 요청서 달랑 1장 밖에 없었다"며 "의원 본인들의 개인정보이동 동의서조차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요청을 하고 조사받을 생각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권익위가 17일까지 의원은 물론 직계존비속 개인

정보이용 동의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하니 이에 응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 3월에 이미 102명 의원 전원의 전수조사 동의를 받았다고 말했는데 이게 거짓은 아니었는지 밝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현영 원내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권익위에 개인정보이동 동의서를 전달하지 않았다. 부동산 전수조사 의지가 있는지 회의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정말 쇠신 하려고 한다면 다른 당들이 했던 것처럼 빠르게 전수조사를 받겠다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 조오섭 "달빛내륙철도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은 15일 서울 중구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을 만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안에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를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의 전향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김부겸 국무총리도 최근 대통령 공약사업임을 강조하며 달빛내륙철도 반영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했다"며 "여야를 떠나 중앙과 지역이 한 목소리로 20여년간 요구해온 달빛내륙철도를 이번에는 반드시 반영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달빛내륙철도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이유는 경제성이 비록 낮지만 영

호남의 정서적 단절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의 정책적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며 "광주, 대구를 비롯한 울산, 부산까지 연결된 남부지역 광역경제권 활성화와 지역산업 연계 시너지를 발휘할 국가균형발전 잠재력이 높은 노선이다"고 설명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우리 사회 오랜 병폐인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동서화합의 대동맥 노선을 결단한 정부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이제 국토부가 결단을 해야 할 시간이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h2 style="text-align: center;">상가 매매 (상무지구)</h2> <p style="text-align: center;"><b>1) 감정가(시세) 9억 매매가 6억 8천</b> (용 4억가)</p> <p style="text-align: center;"><b>2) 보증금 4천만, 월 300만(임대완료)</b></p> <p style="text-align: center;"><b>3) 평수 140평(전용 100평)</b></p> <p style="text-align: center;">☑ 중심상업지역 메가박스 영화관 앞 ☑ 사무실, 바, 유흥룸, 모든 업종 가능</p> <p style="text-align: center;">(즉시 업무가능, 시비없음)</p> <p style="text-align: center;"><b>010-6670-9800</b></p>	<h2 style="text-align: center;">장성토지 (분양 매매)</h2> <p style="text-align: center;"><b>광주에서 20분(도로접) 장성댐(호) 2분, 장성 IC. 5분</b></p> <p style="text-align: center;">1) 100평 → 8천 2) 150평 → 1억1천</p> <p style="text-align: center;"><b>총 1,778평 → 9억</b> (용 4억가능)</p> <p style="text-align: center;"><b>10필지 전원주택 선착순 접수중</b></p> <p style="text-align: center;"><b>062-382-5500</b></p>
--	---

## 부동산 직거래 [ 토지·건물·임야 ] 매매·임대

- 토지와 아파트용 정원수 포함**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전, 190㎡, 느티나무15년생 105주와 7종(소나무, 백일홍, 목련, 벚나무, 함박꽃나무, 산수유, 은행나무) 총 1,810주 광주간 25분, 신실국도4차선 근접, 전원주택, 펜션, 물치장, 다목적 사용자, 조경수 포함 ㎡ 8만원
- 상가건물**  
1) 광주, 동, 대인동시장, 아시안 주도로 사거리코너 점포8칸, 대238㎡ 연257.8㎡ 주변아파트 9천여세대 건축중 문화전당 연계 진흥개발 투자 최상 매9억9천만원 보1천6백 월2백만원 상업지역  
2) 광주, 북, 오치동, 4층 대384㎡ 연998㎡ 사거리코너 요지 1층 점포6칸 매16억 5천만원 보2억 월6백6십만원
- 전원주택, 가든, 펜션 용지**  
1)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0분 메타가로수길 70m점 계획관리지역 전·담 4,363㎡ 덕진산자락 남향 경관수려 ㎡14만원  
2) 화순 북면 옥리, 금포온천 정문 입구 도로점 계획관리지역 전531㎡ 매㎡18만원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용지(주거2종) 분할 가**  
1) 담양읍 양각리, 강변 관방재림, 독일 관광마을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15분 공용주차장, 도로3면 포장 배수로 기반시설됨 경관수려, 정남시장 근접, 교통요지 담4,220㎡(1,276평) 매㎡ 7십만 ※ 분할매매가
- 임야(전원주택, 펜션, 농가주택, 휴양소 약초재배 적합)**  
1) 영암읍 화송리, 계획관리지역등 포함 7만6천㎡ 광주간45분 4차선국도근접 완도간 고속도로 2023년 완공시 영암 IC 300m 지점 이용, 광주간25분 소음, 마을변방 편백 휴양림 1만주식재, 농지가용면적 5천㎡ 쾌적한 자연경관 전원주택 펜션 대형차 출입기 귀촌자 최상 ㎡당 6천원 (매매)  
2) 화순 도곡 신성리, 광주간20분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5,810㎡(전포화) 지석강 바라본 마을변방 정남향, 관방재림 전원주택, 펜션 휴양소 적합 매㎡4만원 (매매)  
3)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25분,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종전 밭으로 경작한 평지 토질 마서토 22,140㎡ 각종 약초 재배 적지 현지적성 맹지 자연림 소나무 자생 매㎡ 2만원 (매매)  
4)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25분, 농림지역 도로접 62,740㎡ 휴양림 적용 다수 자생생약재, 캠핑장, 농가주택가 ㎡5천원 (매매)
- 건축을 임대(상가, 투룸)**  
1) 사무실용 기타(현 마트) 광주, 서, 농성동 돌고개역 근접, 4차선 대로변 7층건물 중 1층 135㎡ 내부깨끗 대형주차장(부설·참고·화장실) 보증금2천만원 월110만원  
2) 광주, 동, 대인동시장 내 점포 아시안 주도로 사거리코너 11㎡(약3평) 전시장, 먹거리, 건어물 기타 다목적 사용자, 보3백 월30만원  
3) 투룸임대 광주, 서, 농성동 돌고개역 양동시장 근접 3층 52㎡ 풀옵션 정남향 엘리베이터 도시가스 대형주차장 보2백만원 월30만원 즉시 입주

※ 부동산 직거래  
광주광역시 서구 월산로 188-8 **H. 010-3612-9262**